

차 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2

과감한 공격전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사상정신적특질..... 8

과학기술력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 13

당의 령도는 조선청년운동의 생명..... 18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은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 25

위대한 전승업적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희세의 령장 30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36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 40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의 정당성..... 46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절세의 위인..... 52

주체 105(2016)년은 우리 당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 58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가치 6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2020년 4월 23일]

오늘 우리 혁명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12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대한 군마행군으로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켜주신데 이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를 현시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로 제시하시고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조성된 난국을 정면돌파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우리가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자면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 백두산공격정신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인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이룩하자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백두산공격정신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장애와 난관을 맞받아 돌파해나가는 완강한 돌격정신이고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자력갱생의 정신이며 순간의 침체나 답

보도 없이 혁명을 끊임없는 비약상승으로 추동하는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정신이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기치인 백두산공격정신에는 가장 혹독한 도전과 위험천만한 격난을 맞받아 헤치며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조선혁명의 력사가 함축되어있고 우리 힘,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준엄한 난국이 가로놓일 때마다 백두산에 오르시여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다지시고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세차게 내려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백두산공격정신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게 하는 강위력한 보검이다.

지금 적들은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백두산공격정신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함이라면 단 한치의 후퇴나 방어도 없이 정면으로 돌진해나가는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들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였으며 대국주의자들과 단호히 맞서 조선혁명의 자주로선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투쟁도 벌리였다.

세월은 멀리 흘러 우리 혁명은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지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정신으로 싸워야 자주권을 고수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는 오늘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등의 구호문헌을 보시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계속하시어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즐기치게 벌려왔기때문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력사에 류례없는 만만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조선혁명을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혁명정신과 백두산공격정신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미래의 안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행태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맞받아나가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계신다.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싸워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이처럼 짧은 기간에 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져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오늘 우리 조국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성새, 세계정치흐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파해나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백두산공격정신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구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 살아가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백두밀림에서 연길폭탄과 더불어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1950년대의 군자리혁명정신과 천리마의 정신으로 분출되었고 혁명의 년대들마다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폭발되어왔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는 백두산에 뿌리를 둔 자력갱생의 성공탑이며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는 우리 인민이 래일에 사는 인생관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의 창조적힘은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자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일관하게 강조하시는것이 모든것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통이 크게 설계하고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여야 한다는것이며 가장 경계하시는것이 목표와 리상이 쏘물썩하고 조

건과 환경에 포로되어 전진할줄 모르는 경직된 사고방식과 일본새이다.

백두산공격정신으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우에서는 눈부신 기적과 변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뚫고나가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을 펼쳐놓았으며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주체108(2019)년의 그처럼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우리는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을 마련하였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린비료공장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들이 면밀히 추진되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인것은 우리 당의 공격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조선혁명력사의 제1페이지에 아로새겨진 력사의 땅 삼지연시를 선렬들이 바라던대로 태양의 영원한 성지답게 이 세상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보란듯이 전변시켰다. 또한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이고도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한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우리는 최단기간내에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강원도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되는 경험들을 계속 창조하고 평안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도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지방공업발전에서 뚜렷한 실적을 올려 이 기세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멀지 않은 앞날에 우리 나라가 세상에 소리치며 잘사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순간의 정차도 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을 따라 질풍노도처럼 온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며 더욱더 강하게 일떠서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괄목할만 한 놀라운 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할수 있는것은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인것이 아니라 굴함없는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안아온 자랑스런 결실이다.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창건 75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로력적성으로 빛내갈것이다.

과감한 공격전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사상정신적특질

[2021년 1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모두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타는 호소는 과감한 공격전이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사상정신적특질이라는데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사상정신적특질입니다.》

조선혁명은 과감한 공격전을 비약과 전진의 무기로 하여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공격전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으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였다.

-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것은 우선 한평생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오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으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였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혁명을 알고 투쟁하는 법을 배우며 공격정신을 체질화한 자주적근위병들로 억세계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언제나 간고한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신

탁월한 정치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락후한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여러단계의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면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투쟁목표와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고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의 전과정을 사소한 로선상착오나 좌절도 없이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으로 빛나게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와의 피어린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것이나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것은 전적으로 과감한 공격전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그리고 1950년대 온 나라에 타오른 거세찬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공업생산을 해마다 30~40%씩 장성시키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한세기 지어 수세기가 걸린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동안에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속도전, 사상전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규정하시교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대담하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이어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우리 인민은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 뚫고나가기 위한 불굴의 투쟁정신으로서의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림으로써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결사전에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우리 당의 전통적인 공격전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부름에 사회주의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으로 화답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수 없고 가질수도 없는 영웅적공격정신과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당창건 75돛경축 열병식에서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뜻과 마음을 같이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시였으며 오늘도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을 체질화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운 우리 인민은 오늘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따라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다.

-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는것은 또한 류레없이 간고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던 조선혁명의 특수성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으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였다.

원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온갖 반혁명세력의 필사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력사는 우리 혁명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은 알지 못하였다.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처음부터 반제민족

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다같이 수행하여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우리 인민은 항시적으로 제국주의강적과 맞서싸우며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우기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이후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류폐없는 제재와 압살의 광풍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보루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인민은 난관에 부닥칠수록 더 역세여지는 완강한 공격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체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이 최극단에 이르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이룩한 승리에 만족하고 만세만 부를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적대세력들이 리성을 잃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길외에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에는 오직 혁명적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것으로 대답하고 우리 국가의 힘을 더 역세게 키워야 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그 날까지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존엄과 자부심은 백배해졌으며 이것은 필승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우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앞으로도 영원히 과감한 공격전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사

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것이다.

과학기술력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

[2020년 4월 27일]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발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정면돌파전에서 승리의 열쇠도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 우리의 자강력은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며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하여 더욱 강해지는 힘이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주적힘의 원천이 있으며 기적창조의 묘술도, 전진의 원동력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과학기술력이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강대한 국가라고 할 때 그것은 국력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세계적인 강

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나라라고 할수 있다. 국력은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총체적인 힘이다.

오늘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그들나름대로의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수 있다. 어떤 나라는 령토의 크기나 자연부원의 량을 가지고 국력을 자랑하고 또 일부 나라와 민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다른 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국력을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힘인 종합적 국력은 그 어떤 분야의 특정한 발전을 가지고 평가할수 없으며 모든 분야의 발전의 기초에 놓여있는 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사회발전의 모든 분야의 기초에 놓여있는 힘은 다름아닌 과학기술력이며 그 발전수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정확히 평가할수 있다.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국가의 발전도 이룩할수 없다. 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국가의 국력을 강화할수 있다. 이로부터 오늘 과학기술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되고있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의례히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는것을 국가정책작성의 주요한 내용으로 정하고있으며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 다른 나라들과의 치렬한 과학기술경쟁에서 앞서려고 하고있다.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경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자면 국력강화의 기본열쇠인 과학기술발전을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우리가 일떠세우는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룡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천하제일강국이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력이 안받침될 때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종합적국력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것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오늘날 우리 국가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된다.

과학기술력이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국가의 밝은 앞날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기때문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꿈과 미래를 담보하는 요인들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과학기술이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주요생산력으로 되고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하루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시대, 새것의 창조를 위한 두뇌의 경쟁으로 국력이 좌우되고 민족의 흥망이 결정되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령역에서 앞서나가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을 흘시하고 과학기술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되고 노예가 된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도 생각할수 없다.

지난 시기에는 자금, 설비, 원료 등이 중요한 생산자원으로 간주되었지만 오늘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기본생산자원으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은 물질적부의 생산과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에 리용되는 전통적인 자원을 대신한다.

세계적으로 자연부원의 대량소비에 의하여 그 원천은 점차 고갈되어가고있으며 오늘날 인류는 자원위기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생산자원을 대신하는 지식자원 즉 과학기술의 잠재력은 무제한하며

최신과학기술에 의하여 줄어들거나 고갈된 자원을 대신하는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고있다. 인류가 심각한 에네르기위기와 식량위기,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생존하고 발전하여올수 있는것은 지식에 의거하여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달성한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자연부원을 생산자원으로 리용하던것이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인류와 사회발전을 담보해나가는 전략적자원으로 될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특히 우리 국가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살책동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이 기정사실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해나가자면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쓰면 줄어들고 한계가 있는 자연부원과 달리 과학기술의 잠재력은 무한대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것이 과학기술의 힘이다. 무진장한 전략자산인 과학기술만 틀어쥐면 적들의 제재봉쇄속에서도 우리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말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및 발사국으로 존엄떨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우리 식의 CNC 화가 실현되었으며 새 세기 주체건축의 눈부신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우리 공화국의 발전력사는 령토가 작고 인구수가 적다고 하여도 과학기술발전전략을 국가의 제일가는 전략으로 내세우고 전체 인민이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작은 나라도 강국의 지위를 차지할수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었고 과학기술을 앞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든든한 물질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고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여도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현시기 과학기술력은 우리 국가의 밝은 앞날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고 모든 부문을 과학화함으로써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적대세력들의 경제기술적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우리의 손으로 남들이 보란듯이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당의 령도는 조선청년운동의 생명

[2020년 8월 28일]

우리 청년들은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조선청년운동의 생명이며 청년대군의 위력은 당의 령도를 받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청년운동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에만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청년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당의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믿음직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령도가 청년운동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청년운동을 영원히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기때문이다.

청년들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데서 중차대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를 계승하는것이다.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인 청년전위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은 수령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우리 청년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간직한 신념의 강자, 견결한 계급의식을 만장약한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키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청년운동을 영원히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고찾으시여 우리 청년들을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완강한 공격기질을 지닌 공격형의 투사로, 당의 결심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용사로 키우시고 그 모범을 모든 근로자들이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우리의 미더운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속에 주체의 신념, 개발창조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실패와 난관앞에 두려움없이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위투사들로 이끌어주시였다.

하기에 주체혁명의 계주봉을 역세계 틀어잡은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든든한 배짱과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당의 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역세계 자라날수 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청년군인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여 그들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새겨주시고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청년들의 심장속에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시였으며 청년들을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내달리는 불굴의 혁명가들로 키우시였다. 그리고 청년운동사에 특기

할 청년들의 대회합들을 마련하시여 청년운동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청년들에 대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백두산지구예로의 답사행군도 조직해주시고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새로 나왔을 때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주시고 청년전위들을 당중앙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계 키우시였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은 오직 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억세계 나아가고있다.

하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백두의 혈통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념의 피줄기이며 일심단결의 대이다. 혁명의 1세대청년들처럼 자기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당의 령도를 일편단심 끝까지 받들려는 고결한 충정이 500만청년들의 피끓는 심장속에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청년대군이 있기에 조선청년운동은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가 청년운동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청년운동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불패의 위력을 떨치는 전투적인 청년운동으로 되게 하는 결정적담보이기때문이다.

청년운동의 전투적위력은 조국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과시된다. 청년들은 조국보위전의 주력부대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

투장은 우리 청년들의 활무대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청년들이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혁명의 총대와 함께 청춘시절을 값있고 보람있게 보내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현지도하실 때마다 병사들을 나의 동지라고 뜨겁게 불러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된 군인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의 요새로 다져나가도록 무적의 힘을 주시고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첫 청년절을 나라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머나먼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전구를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전장들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그 정신과 본때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격대, 과학기술발전의 선구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청년들을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영웅이라는 고귀한 칭호도 안겨주시고 당의 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그들이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서 첨단과학기술성파로 강국건설위업을 떠받들어나가는 핵심들로 키워주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갈것이며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사회주

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청년운동은 보다 강화발전될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가 청년운동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청년들을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품모를 지닌 인간들로 키우는 원동력이기때문이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 세대들이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고상한 문화정서적품모를 지녀야 문명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될수 있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이 승승장구하고 온 사회에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게 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탄원한 청년들은 물론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도 제 2 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충정심과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긍정적소행들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적극 내세워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들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신다.

2.8직동청년탄광 9갱 굴진3소대 굴진공들만 보아도 그들은 덧없이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에게 더 마음쓰며 따뜻이 위해주는 어머니당의 은혜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탄광으로 달려나오게 되었다. 그들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 살림집에 결혼상까지 차려주고 첫날이불과 부엌세간까지 그쁘히 갖추어주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 사랑, 그 은정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그들은 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온 탄광이 떠받드는 보배들로, 온 나라가 아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대오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던것이다. 이러한 미풍의 소유자들은 그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친어버이사랑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훌륭한 미풍의 소유자로, 시대의 전형으로 자라나고 있다.

특류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청년들과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 혈육의 정을 깡그리 바치고있는 《처녀어머니》, 불치의 병으로 하여 걷지 못하는 아이를 수년동안이나 업고다니며 치료를 해주어 끝내는 대지를 밟을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청년들과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청년들, 외진 산골이나 섬마을학교에 자진하여 달려가 학생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교원들과 같이 이 땅에 수없이 꽃피어나고있는 미덕의 소유자들, 제손으로 아름다운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모습에 조국의 미래가 비낀다. 다른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사치와 허영, 부패와 타락에 물젖어 민족의 장래에 그늘을 던지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건전한 정신도덕적품모의 소유자, 인간사랑의 화원을 가꾸는 선구자로 되고있다.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만 훌륭한 청년대오가 자라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으며 진주보석과 같은 청년들의 고상

한 정신세계와 미풍은 지금 온 나라에 긍정창조의 불길,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져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를 배가해주고있다.

청년들이 견실하고 건전하기에 우리 조국의 전도는 양양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가고있는 우리 청년전위들은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으로 온 세상에 청년강국의 위상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참된 삶을 빛내어나갈것이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은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

[2021년 8월 25일]

오늘 우리 조국은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전진동력으로 하여 온갖 도전들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최대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백두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의 진군길에서 일군들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혁신적인 일본새, 고상한 인민적품모를 지니고 주체혁명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갈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은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이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조된 혁명정신이고 투쟁기풍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사에 조선혁명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은 찾아볼수 없다.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한 항일혁명투쟁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은 《동양의 맹주》로 자처한 일제를 상대로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한 민족해방투쟁이었다.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너무도 우세한 침략자들과의 피어린 대결이었다. 일제 자체가 항일유격대를 가리켜 《창해의 일속》이라고 떠들었다.

적들과의 피어린 격전, 뼈속까지 얼어드는 혹심한 추위, 최악의 식량난,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마, 혁명가의 신념을 검증하는 복잡한 정세변화 등 그야말로 시시각각 정신적, 육체적극한점을 이겨내야 하는 엄혹한 시련을 헤쳐야 했다.

국가적후방도 억측도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연길폭탄정신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기어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 모두를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시는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뜻을 같이할 혁명동지 한사람을 위해 험준한 길을 주저없이 걸으시였고 무서운 병마속에서도 《반일전가》를 부르시면서 투사들에게 백절불굴의 정신을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항일대전의 나날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을 필승의 신념과 의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헤쳐나가면서 밀림속에서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고 돛바늘로 재봉기바늘을 만들어 수백벌의 군복을 제작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창조하여 후세에 정신적유산으로 물려준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공적이다.

이처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은 류레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의 간고성, 특수성을 반영하여 창조된 백승의 무기였다. 바로 여기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조선혁명의 전력사적로정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게 한 원동력이였기때문이다.

간고한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위력한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다.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주저앉거나 힘들다고 하여 에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원동력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증첩되는 모든 난관을 뚫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꺾어왔다.

오늘도 우리 당이 1950년대 전승세대들의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울것을 호소하는것은 위대한 년대의 세대들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우리 조국을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으로 세계앞에 떠올렸기때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안아온것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혁명적군인정신과 강제정신으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패승을 안아온것도 그 근처에는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놓여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은 세월의 언덕을 넘으면서 조선혁명 고유의 생명력으로 줄기차게 계승되어왔으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가속화해나가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압살책동과 횡포한 자연의 광란, 온 세계를 휩쓴 대류행전염병 등 사상초유의 도전과 격난속에서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전변과 기적을 창조하며 자존과 번영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았다.

역사와 현실은 항일대전에서 창조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투쟁기풍이야말로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부강조국건설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 백승의 원동력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정녕 항일의 혈전만리에서 창조되고 조선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게 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은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이며 대를 이어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야 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혁명의 내적동력, 주체적힘을 백배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난관과 시련은 중중첩첩 겹쳐들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최대로 필요한 때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백

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단호히 격파하며 이땅에 세인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위대한 전승업적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희세의 령장

[2020년 7월 26일]

오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권리를 영예롭게 수호한 전승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의 7.27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이며 세계를 제패하고 노예화하려고 접어들던 침략자들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몰아넣은 궁지높은 승리자의 명절이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한것은 인류전쟁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적기적이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이날을 맞을 때마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안아오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절세위인들께서 창조하신 전승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래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되고 계승되어온 전승업적, 백승의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더욱더 빛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탁월한 군사리론가이시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며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된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은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령도자에 의하여서만 확고히 옹호고수되고 더욱 빛나게 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절세위인들의 군사사상과 로선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양보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의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에 기초하여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주체 101(2012)년 4월 15일 김일성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인민군대는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인민군대를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밝혀

주시여 승리만을 떨친 인민군대의 자랑찬 역사를 그대로 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특히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신것은 우리 군대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굳건히 고수해나가시려는 그이의 드림없는 의지의 반영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지휘성원들에게 모든 장병들을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싸움군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 4 차, 제 5 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와 조선인민군 제 5 차 훈련일군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서 밝혀주신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과업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사상과 군사리론,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백승만을 떨친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역사를 빛내여가시려는 백두령장의 위인상이 그대로 어리여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군종, 병종의 경기대회들을 조직해주시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신분도,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들과 포연서린 화선들을 찾고찾으시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을 백승의 지침으로 발전 풍부화하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회세의 령장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군대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따를수 없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영원히 빛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1950 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반제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강철의 령장이시다.

전통을 계승하면 력사가 빛나고 전통을 무시하면 력사가 없어진다. 아무리 위대한 전통을 창조하여놓아도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어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한갓 옛말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의 혁명투쟁력사는 위인에 의하여 창조되고 위인에 의하여 빛나게 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1950 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반제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이 땅우에 빛나는 전승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은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선배들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 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전세대들이 창조한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몸소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아버리려 전대미문의 군사적위협공갈과 야만적인 경제적제재를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던 시련의 그 시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드센 배짱을 지니신 희세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강인담대한 결단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국주의와의 그 어떤 전쟁도 두렵지 않다는 결사의 의지로 조국수호와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관철을 위하여 사시장철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였다. 포연서린 훈련장에서 오랜 시간 인민군부대들의 합

동타격훈련을 지도해주기도 하시고 적아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초소와 오성산의 까칠봉초소에까지 나가시여 병사들에게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기도 하시였다.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의 전술훈련을 지도해주시고 27hp의 작은 목선에 오르시여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시며 장재도와 무도에까지 나가시여 전군을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완성으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특히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제국주의와의 대결을 끝장내고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직접 구상하시고 우리 식의 주체적전략무기들을 만들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완성하도록 연구방향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몸소 전략무기개발의 총설계가, 제 1 선전투원이 되시여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흠먼지 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찾고찾으시며 전략무기 시험발사 전과정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국방과학연구기지들과 조립현장들을 찾으시여 과학자, 연구사들에게 세계가 보란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나가라고 연구종자들을 친히 안겨주시였으며 실패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라는 구호도 친필로 보내주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3.18 혁명》, 《7.4 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월대사변》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걸음마다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당하게 되였다.

력사적으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제국주의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제국주의를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였다. 이것은 어길수 없는 법칙이며 력사의 필연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희세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조선의 영웅적투쟁사를 광휘롭게 수놓아갈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2021년 6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라는것을 바로 리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실시하고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정당성을 원리적으로 인식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 혁명적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게 하기때문이다.

혁명적당의 강화발전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

혁명적당이 령도적사명에 충실하고 전투적위력을 발휘하자면 인민대중과 공고한 뉴대를 이루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인민이다. 인민은 당과 국가의 기초이고 진보와 발전의 무한대한 동력이며 영원히 사멸되지 않는 강력한 력사의 주체이다. 인민은 결코 정치의 수단으로, 부속물로 될수 없다. 당의 존망과 성패를 가르는데서 인민은 근본의 근본을 이룬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처럼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과 더불어 존재하는 당은 필승불패하지만 인민을 외면하고 인민우에 군림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는 당은 반드시 패배를 면치 못한다. 인민과 하나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그들을 새시대로 인도하는 당만이 존엄높은 향도적력량으로 위용떨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자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위대한 우리 당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기적은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당중앙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당을 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하고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속화한 추동력이였다. 세상에는 우리 당과 같이 일심단결을 천하지대본으로,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삼고 조국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해나가는 혁명적당은 없다.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로동당만세소

리가 높이 올려퍼지고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어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도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는 관점과 립장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감, 불같은 혁명적열정을 발휘하게 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당과 국가의 정책은 대중의 무한대한 힘과 끝없는 창조적지혜를 분발승화시키는 추동력으로 된다.

혁명발전의 원동력을 인민대중의 심장속에서 찾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위력은 부닥치는 난국과 정세변화에 대처하여 인민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은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하였다.

주체혁명위업을 향도해나가는 력사적인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혁명의 위력한 주체로 키우고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양시켜 혁명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한 우리 당의 령도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격변기, 도약기에 들어섰다. 조성된 주객관적장애와 도전은 여전하며 우리 앞에는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을 기어 이 일떠세울것이다.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

[2020년 3월 24일]

오늘 우리 공화국은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전선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떨쳐나섰다.

사회주의건설이 매우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것은 조선혁명의 불패의 힘이며 번영의 보검인 자력갱생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완수하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선언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은 혁명과 건설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적들이 제재를 하든 안하든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우리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국가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데서 고정불변한 방식이란 있을수 없다. 나라마다 사회정치경제적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끊임없이 변하는데 맞게 전략전술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시대와 역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지만 제힘을 믿고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원리는 변할수 없다. 자력갱생은 혁명과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우리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이다.

자력갱생이 주체조선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무기이기때문이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힘, 정신력의 역할이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력사이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에 의하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정신력이란 정신적인 힘 즉 무엇을 하겠다는 정신이 발동되어서 낳은 힘이다. 우리가 말하는 인민대중의 정신력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자주정신, 신념과 의지의 힘을 말한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에서 중요한것은 자주정신 다시말하여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의 힘으로 해나가게 하는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인민대중이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정신적무기이다.

물질적인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힘 즉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힘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에 맞게 진행해나가도록 추동하는 근본요인이다. 만일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힘만을 우선시하면서 국가건설을 진행해나가게 된다면 그 발전과 번영을 담보할수 없다.

더우기 사회주의사회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상의 힘, 정신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인민대중이 견인불발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게 되며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객관적인 물질경제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상태에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든든한 물질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어도 침체와 담보를 면할수 없지만 인민대중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

로 전환시키며 대고조를 일으켜나갈수 있다.

지나온 우리 혁명의 력사는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양시키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연길폭탄정신은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고 1950 년대를 뒤흔들어놓은 자력갱생의 장엄한 우뢰는 우리 조국이 수세기를 도약하여 공업화의 과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이라는 력사적전변을 이룩하게 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은 가장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었고 최악의 역경속에서 부강번영의 새시대로 도약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자력갱생의 궤도우에서 재가루만 날리던 폐허우에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이 일어났으며 오늘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미래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하는 력사적대업을 성취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며 국가의 밝은 전도를 기약해주는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다.

자력갱생은 혁명투쟁에서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대중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정신적무기로 된다. 바로 여기에 자력갱생이 주체조선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자력갱생이 주체조선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생눈길을 헤쳐야 하는 전인미답의 위업이며 복잡하고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속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승리하자면 그것을 영원히 담보할수 있는 필승의 보검이 있어야 한

다. 그것이 바로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려는 혁명정신과 투쟁원칙을 말한다.

사회주의건설과정은 곧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침략과 략탈이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존재가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해 《경제원조》라는 미끼로 그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교묘한 방법으로 전략자원들을 략탈하고있다. 또한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와 봉쇄로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대가 강하고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정한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침략과 제재책동을 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좌절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일시적인 경제성이나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하고 남을 넘겨다보면서 그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없으며 나중에는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수입병을 비롯한形形色색의 잡사상이 나타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세계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할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힘밖에 없다.

방대한 규모에서 거창하게 벌어지는 사회주의건설과정에는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부족되는 모든것을 남에게 손을 내밀어 해

결할수 없다. 빗진 종이라고 동냥자루를 메고 구걸하느라면 어차피 자기의 운명을 남에게 내맡긴 노예가 되고만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현실이 자주적대가 없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아무리든든한 군사력과 물질경제적밀천을 가지고있어도 혁명의 전취물을 지킬수 없고 사회주의건설을 망쳐먹게 된다는 피의 교훈을 주었다면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끊임없이 일으켜나갈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었다.

역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외세의존은 예측의 길, 망국의 길이며 자력갱생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통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오직 자기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이 길만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길이다.

이처럼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바로 여기에 자력갱생이 주체조선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로 되는 다른 근거의 하나가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목격한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수 있었다.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봉쇄책동속에서도 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건설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그 어떤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도 없이 순수 자기 힘으로 발전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기에 많은 나라들이 조선을 놀라운 눈으로 보고있다. 조선이 내세우고있는 자력갱생은 정말로 성공적이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

하고있다.

정녕 우리 공화국이 내세우고있는 자력갱생은 조국의 오늘과 래일까지도 영원히 담보해주는 주체조선의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이다.

세계는 이제 멀지 않아 주체조선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을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을 훌륭히 일떠세우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의 정당성

[2020년 1월 30일]

1. 서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힘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주체혁명위업의 활로를 열어어나가기 위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전 로정을 관통하고있는 혁명정신이고 투쟁방식이며 그 힘은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원동력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전진로정을 새로운 승리로 계속 이어지도록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으로 된다는것을 해설론증하려고 한다.

2. 본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아가야 합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이다.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력사적투쟁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비약의 원동력으로 하여 막아서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타개하고 승리만을 이룩하여왔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의 정당성은 우선 그것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활동의 승리적담보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존재라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려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이고 요구이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는 그들의 창조적활동에서 발현된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요구는 조국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뚜렷이 발현되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자력갱생을 체질화하였고 그 힘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승리만을 떨쳐왔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나날 자력독립의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이 자체로 폭탄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어내면서 일제의 100만대군을 무찌르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 전선에 무기와 탄약을 보장하고 전승을 안아왔으며 벽돌 한장 성한것 없었던 전후에는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와 트랙토르를, 그후에는 전기기관차, 1만 t 프레스,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전진해나가는 우리 사회주의의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즐기차게 이어진 주체혁명위업의 력사적로정에 서 우리 인민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조국의 운명을 지키고 거창한 창조물들을 마련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지향과 요구가 어떤것인가를 세계에 더욱 뚜렷이 보여주었다.

자주적근위병으로 되느냐 제국주의노예로 되느냐 하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우리 인민은 자기 힘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자기 힘과 지혜로 주체철과 주체비료를 생산해냈으며 우리 식의 CNC 기술을 개척하고 초고전력전기로를 비롯한 자력갱생의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요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격변기를 안아오기 위한 힘찬 자력갱생대진군에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나라의 북부지역을 휩쓸었던 자연재해를 가시고 삶의 보금자리를 더욱 훌륭하게 전변시킨 사실과 지난해 례년에 없는 태풍과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도전속에서도 전례없는 태풍을 안아온 사실들, 삼지연시꾸리기 2 단계공사를 결속하고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에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를 자랑스럽게 건설하였으며 북방의 동해기슭에 중평남새온실농장과 현대적인 양묘장,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한것과 같은 몇가지 사실들을 놓고도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요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알수 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을 자기의 삶과 투쟁의 요구로 내세우고 그 힘으로 모든 승리를 이룩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5차 전원회의에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창조적 노력에 의거한 거창한 애국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것을 더 많이 창조해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로선이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의 정당성은 또한 그것이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토대를 강화해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적조건에 부합된다는데 있다.

강위력한 국방력과 자립경제토대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공화국은 자력으로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갈수 있는 자위적국방공업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의 살림을 보다 운택하게 해나갈수 있는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공업의 토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밀림의 병기창에서 그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자력갱생의 힘으로 다져져왔다.

오늘날 우리의 주체적국방공업은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도 자체로 완벽하게 개발해냄으로써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더욱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국방건설 목표를 확고히 달성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자립경제는 주체조선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기초이며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책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기초를 허물고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자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크나큰 로고를 바쳐 마련하여 주신 우리 공화국의 자립적경제토대는 세계의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왔다.

전후에 국제분업과 통합경제로선을 제창하는 썬브의 압력속에서도 우리의 자립경제토대는 흔들림없이 강화되었고 세계를 휩쓰는 경제공황의 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다져졌다.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쥔 우리 공화국이였기에 남들이 한세기 또는 수백년이 걸려서야 달성할수 있었던 공업화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할수 있었으며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어 절대다수의 나라들과 기업체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도 흔들림없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오늘날 우리의 자립적경제토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채부들을 더 많이 창조해낼수 있게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린비료공장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공장들, 전력생산기지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정만 보아도 우리 공화국의 자립적경제토대의 잠재력이 어떤 기적을 낳고있는가를 알수 있다.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도전을 물리치며 자체로 생산한 수만 t의 세멘트와 수천 t의 강재, 마감건재를 비롯한 각종 건설자재들에 의거하여 시작된 이 방대한 건설공사는 착공된 때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기의 면모를 드

러내며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짐으로써 이 지구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문화휴식터, 인민의 해양공원으로서의 체모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고 있다.

올해에 나라의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이 힘있게 진행되고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서 규모가 큰 단천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건설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농업전선의 병기창, 현대공업의 동력기지들이 그쯘하게 마련되어가고있는 사실들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굳건히 다져지는 우리 공화국의 자립경제토대와 그가 발휘하는 거대한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있다.

3. 결론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은 일시적인 난관을 모면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우리 혁명의 전 로정에서 전진발전의 원동력으로 발휘된 자력갱생의 힘으로 오늘날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즐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힘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체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더욱 상승시켜나갈것이다.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절세의 위인

[2021년 8월 28일]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 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조선청년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8월 27일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과 주체 103(2014)년 9월 18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과 말씀들에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청년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데 대해서와 청년들속에서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하고 고상한 정치사상적품모를 갖춘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더욱 억세계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5(2016)년 8월 28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에서 조선청년운동은 어버이수령님들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강국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고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로 안겨주시였다.

주체 110(2021)년 4월 29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청년동맹 제 10차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서한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는 우리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년으로 만드는것을 현시기 청년동맹의 기본임무로 제시하시였다. 서한에는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애국청년으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당 제 8차대회 결정관철

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영예로운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동맹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청년동맹조직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무엇이며 전투적위력을 높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년들에게 조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문명부강할 때일을 최대로 당겨와야 할 시기에 서야 할 위치는 어디이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실천강령인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서한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혁신하고 강화발전시켜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력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청년운동은 주체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선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들속에서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의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자식들이 건전하고 혁명적인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늘 원심을 쓰는 친부모의 심정 그대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관심하고 이끌어주신분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칼바람 불어치는 백두산에 몸소 오르시여 청년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에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기 위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고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새로 나왔을 때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먼저 보내주시여 그들의 심장이 혁명의 1세대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맥동치도록 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청년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나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믿음직한 전위투사들로 억세계 자라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청년들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청년들이 총을 잡고 조국보위의 제일선에 서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간직하도록 하시였으며 적들이 무모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용약 펼쳐나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자기의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장, 학교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얼마나 투철하고 애국의 열정이 넘쳐나고있는가 하는것은 주체 104(2015)년 8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치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던 때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후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 복대할것을 열렬히 탄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속에서 발휘된 숭고한 정신세계와 미더운 모습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수많은 청년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한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수도 없고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들이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위

훈의 창조자, 영웅청년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청년들에게 큼직한 일감을 맡겨주시고 영웅이라는 부름과 함께 온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백두청춘들의 영웅적위훈이 력사에 길이 전해지도록 하여주시려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부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을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워주시어 온 나라 청년들이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대 건설장들마다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으며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어 온 나라가 청년관으로 흥성이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청년들을 고상한 품성을 지닌 사회주의 미덕의 소유자들로 키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동맹조직들이 정의감이 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열렬히 지향하는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찾아내고 일반화하며 그들의 미풍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긍정창조의 불길이 타번지게 하시었다.

그 사랑, 그 믿음속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키우고있는 《처녀어머니》의 소행이 발휘될수 있었고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 용약 달려나간 어엿한 애국청년들의 미풍과 함께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참된 청년들의 소행이 미덕의 화원속에 아름답게 꽃피어나게 되었다.

청년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과 미풍들을 귀중히 여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4(2015)년 5월 제 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소

집하여 청년들을 높이 내세워주시었으며 대회참가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처럼 청년중시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적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청년들의 영예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스승이시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주체 105(2016)년은 우리 당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

[2017년 1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인민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길에 나선 천만군민은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인 주체 105(2016)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주체 105(2016)년은 당 제 7 차대회를 통하여 당의 조직사상적위력이 백배해지고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우리 당 력사에 특기할 해였다.

— 무엇보다도 지난해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계기로 당의 조직사상적위력이 백배해진 특기할 해였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승리자의 대회,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영광의 대회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주체105(2016)년 5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또하나의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걸어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조선혁명의 만년기틀이 확고히 마련되었다.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이 사업이 혁명위업수행의 전기간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향도 없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고수하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던 역사적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할것을 결정하고 당의 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게 된것은 전체 당

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더없는 행운이고 자랑이며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주체조선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우리 당과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으로서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특기할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열리는 기간 이땅에서는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 탁월한 령도자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걱정과 환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드림없는 신념과 불같은 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만년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인민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있는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되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진행되는 전기간 세계의 이목은 조선으로 집중되었으며 무한대한 우주공간이 특대보도로 짝 채워졌다.

남조선의 《연합뉴스》와 《YTN》, 《KBS》를 비롯한 신문, 방송들과 인터넷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당 제 7차대회소식을 그이의 사진문헌과 함께 전하면서 《김정은제 1 위원장 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 《새로운 김정은시대가 본격화되었다》,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추대》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하였다. 세계의 언론은 저마다 《2016년은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체제가 완성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대분수령이 될것이다.》라는 내용의 글들을 실으면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대정치축제》라고 평하였다.

돌이켜보면 세계정치사에는 수백년의 정당정치와 당대의 치적을 자랑하는 집권당들도 있지만 인간해방의 거창한 사회정치적과제들을 그 어떤 세계적인 정치풍파에도 끄떡없이 수행해나가면서 혁명적당의 참다운 본보기를 창조하며 인민에게 완벽한 승리의 설계도를 안겨주고 그 빛나는 실현으로 이끌어가는 향도자는 세상에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다.

참으로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당 제 7차대회와 경축행사들은 사상과 령도의 거장, 리상형의 인민적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참모습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특기할 대정치축전이였다.

— 다음으로 지난해는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이 만천하에 과시된 특기할 해였다.

당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뚜렷이 나타

나게 된다. 이것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당풍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의 본성적요구와도 관련된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전투력과 위력은 지난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70 일전투와 200 일전투의 거창한 창조대전에서 날에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한데서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조선로동당은 력사적인 당 제 7 차대회를 앞두고 70 일전투를 벌릴것을 발기하고 전체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어 온 나라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심장의 호소가 맥동치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아안은 전당, 전군, 전민은 70 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70 일전투로 들끓는 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을 기적과 위훈창조예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력사적인 70 일전투과정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의 불길 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전장들마다에서는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 과정에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되고 대중적영웅주의와 경쟁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어 인민경제의 중요전선들에서 전형단위들이 꾸러지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과감히 전개되어당 제 7 차대회에 드리는 빛나는 로력적성과들이 마련되었다. 결과 전국적으로 70 일전투계획이 144%로 초과완수되고 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배로 장성하였으며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수백개의 대상이 준공, 조업 및 개건되었다.

조선로동당은 력사적인 70 일전투에 이어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열린 지난해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해로 빛내이기 위한 200 일전투예로 당과

군대,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조선로동당은 온 나라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진 지난해의 70 일전투에 이은 200 일전투의 련속적인 철야진군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년들이 고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기상, 서로 돕고 이끌면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치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지난해 8월 말~9월 초 조국의 북부지역에서 큰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완공을 앞둔 려명거리건설까지 중지하고 200 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전환할데 대한 중대결단을 내리고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피해지역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북부피해복구전투에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어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에 총결기, 총매진해나섰다.

북부피해복구전투장들마다에서 화선선전의 북소리,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방송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군악선동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전투력과 위력은 백배해졌으며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은 더욱 굳건히 지켜졌다.

력사적인 70 일전투와 200 일전투는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전민결사전, 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으로서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지난해 말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 1 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더욱 높여나가는 중요한 계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제 1 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대회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제 1 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데서 지름길을 열어놓은 뜻깊은 대회, 영광의 대회인 것으로 하여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참으로 지난해 주체 105(2016)년은 조선로동당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당의 조직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함으로써 우리 당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온 나라 인민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지난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나게 아로새긴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또다시 기적과 위훈창조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 드높은 결의에 넘쳐 새해 진군길에 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의 앞길에 그 어떤 세력의 도전과 난관이 겹쳐들어오든 오직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치

[2017 년 1 월 6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6(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당이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서 민족의 통일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데 대하여 총화하시면서 역사적인 7. 4 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돛과 10. 4 선언발표 열돛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아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적문제들이 뚜렷이 명시되어있기때문이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통일로 나아갈수 있는 출로를 찾을수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해야만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침예한 정치, 군사적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으며 자주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다. 따라서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

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그러자면 우선 북과 남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려는 자세와 립장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투철한 립장에 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공화국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은 북남관계개선과 량립될수 없다. 조선반도에 외세의 침략무력이 계속 들어오고 화약내질은 전쟁연습소동이 벌어지는 속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서로가 마주앉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북남관계개선은 오직 외세의 침략무력증강책동이 중지되고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벌리는 전쟁연습소동이 벌어지지 않는 평화적인 환경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자위적행사들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사라는 관점에 서야 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을 중지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럴때만이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정치, 군사 및 인도주의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되어 나갈수 있으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이 올해 자주통

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치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과제들이 뚜렷이 명시되어있기때문이다.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통일운동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다.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고한 집단을 이루고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살아나가는것은 민족의 보편적인 생존방식이다. 민족은 이러한 생존방식에 따라 하나로 굳게 결합될 때에만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적과정에 각이한 사회발전단계를 거쳐왔지만 그 과정에 혈연적공통성을 공고히 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의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갈라진 민족의 두 부분을 하나의 민족적혈맥으로 이어놓고 단일민족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민족의 재결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가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단합과 민족적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로는 될수 없다.

조선민족은 하나의 피줄과 하나의 언어 그리고 하나의 력사와 문화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기때문에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을 초월하여 민족적단합을 실현하여야 하며 또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

조국통일은 명실공히 본래부터 하나인 우리 민족의 단합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다른 한편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주체의 위력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다르고 또한 북과 남, 해외로 갈라져 살고있으나 민족의 생명인 민족적자주권을 전국적범위에서 되찾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하나로 잇기 위한 통일애국위업에서 그 누구도 예외로 될수 없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통일이고 통일강국이다.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의 대단결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을 초월하여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는 구체적실천행동을 통해 이룩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에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각이한 정당, 단체들이 서로의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만을 절대화한다면 언제가도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할수 없다.

전민족의 대단결은 오직 누구를 불문하고 또 정파에 관계없이 서로의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대의를 귀중히 여기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을 견지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직적인 련대련합을 실현할 때 가능하며 실지 조국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위력을 다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북과 남, 해외에 전체 조선민족은 그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있든 조국통일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련대련합을 실현해 나가는 실천행동을 통해 강력한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것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전민족범위에서의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떠나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수 없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이 올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치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방도들이 명백이 밝혀져있기때문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때문이다.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70여년이 되도록 식민지지배를 실시하면서 남조선을 아시아지배전략의 교두보로 삼고있는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은 세기를 이어오면서 계속되고있다. 조선반도에 다시 침략의 발을 들여놓으려고 호심탐탐 기회만 노리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 또한 간과할수 없다. 외세에 명줄을 걸고 식민지주구의 잔명을 부지해가고있는 남조선의 한줌도 안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도 북남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행위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리는것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결과제로 된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해서는 우선 온 민족이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분기해나서

야 한다.

이와 함께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내외반통일세력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온 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한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투쟁과업은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가장 정당한 투쟁과업이며 통일운동앞에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과업들을 명시한 가장 현실적인 투쟁의 기치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투쟁의 기치로 높이 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것이다.